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이야기구조와 남녀주인공의 특성: 방송 3사를 중심으로

Structure of Story and Characteristics of Protagonists in Television Melodramas: Focusing on Three Major Broadcasters

박은하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unha Park(eunha0530@hanmail.net)

요약

본고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하여 대중이 선호하는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방송 3사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를 대상으로 드라마의 유형, 갈등 요소, 애정 구도를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녀주인공의 직업, 성격, 이미지를 중심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남녀주인공의 특성도 방송사별로 분석하였다. MBC와 SBS는 ‘로맨스 멜로드라마’가 대다수였으나 KBS는 ‘가족 멜로드라마’와 ‘코미디 멜로드라마’가 많았다. 갈등 요소에서, MBC는 ‘사랑과 성공을 위한 경쟁’, SBS는 ‘빈부 격차를 극복한 사랑’, KBS는 ‘온달을 왕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애정 구도는 SBS와 KBS는 하나의 삼각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MBC는 두 개의 삼각관계 구도를 보였다. 세 방송사 모두 남자주인공의 직업은 ‘재벌’, 여자주인공의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남자주인공의 성격은 방송사별로 다르게 나왔는데, MBC에서는 ‘낙천적 성격’, SBS에서는 ‘안하무인’, KBS에서는 ‘단순/순진’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주인공의 성격은 세 방송사 모두 ‘명랑’이 가장 많았다. MBC와 SBS에서는 ‘능력형’의 남성상을, KBS에서는 ‘유아독존형’ 남성상이 많았으며 여성상으로는 세 방송사 모두 ‘캔디/생계형’이 가장 많았다.

■ 중심어 : | 텔레비전 멜로드라마 | 남녀 주인공 | 갈등요소 | 애정구도 | 남성/여성상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in melodramas by comparing three major television broadcasting companies(MBC, SBS, and KBS) since 2000.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Romance" melodrama is more common in MBC and SBS, than in KBS, where "family" melodrama is more common. The most cause of conflict shown in MBC is "lov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at in SBS is "conflict between love and success", and that in KBS is the conflict similar to that between "Ondal the fool and Princess Pyeong-gang". The most common love relationship shown in SBS and KBS is the "single love triangle" and that in MBC is "double love triangle". In the shows of all three TV broadcasting companies, male protagonists most frequently belongs to "jaebeol" (the rich) and female protagonists are "company workers". The most common personality trait of male protagonists' in MBC shows is and "optimism", in SBS shows, it is "supercilious behavior", in KBS, it is "simple-hearted". However, the personality of female protagonists in the shows of all three broadcasting companies can be described as, bright and cheerful. In MBC and SBS, male protagonists were frequently portrayed as capable, and in KBS, as self-conceited. in KBS are the most frequent. Female protagonists in the shows of all three broadcasting companies were most frequently portrayed as hardworking.

■ keyword : | Television Melodrama | Protagonist | Cause of Conflict | Love Relationship | Male/Female Image |

I. 머리말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의 인기와 중요성을 반영하듯, 각 방송사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특히 중요 시간대에 드라마를 주로 편성함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텔레비전 특유의 형식 속에서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일정한 배경으로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발생하여 그러한 인물과 사건이 갈등과 해소로 구성, 전개되는 어떤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드라마를 이끌어 가는 것은 등장인물 및 인물 상호간의 관계이다. 드라마에서 사건들은 반드시 일정한 인물에 의해, 일정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다[1]. 등장인물 가운데서도 특히 드라마의 주인공은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가며 다른 배역들에 비해 등장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다른 등장인물보다 더 크다고 하겠다[2]. 따라서 드라마 속에서 남녀주인공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는 드라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된다.

최근에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다채널 환경 속에서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특정 장르나 특정 채널의 프로그램만을 집중적으로 시청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3]. 특히 방송 3사에서는 드라마를 편성하면서 드라마 전쟁과도 같은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시청자를 사로잡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그들만의 전략을 쓸 것이다. 그 영향이 멜로드라마의 특성에 반영되는지 방송 3사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200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멜로드라마를 선별하여 그 드라마의 구성과 그 속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멜로드라마 구성과 남녀 주인공의 특징이 방송사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하고자 한다.

멜로드라마의 비율을 살펴보면, KBS2는 총 드라마 171편 중 멜로드라마가 88편으로 51.5%, MBC는 총 204편 중 137편으로 67.2%, SBS는 전체 294편 중 159편으로 54.1%를 차지한다. 방송사별로 드라마 장르 중 멜로드라마가 50%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청률과 드라마 경쟁이 과

도하여 방송사간의 드라마 전쟁이라고 할 만큼 방송사마다 드라마가 제작되며 시청률에 따라 드라마의 방영 시기도 좌우되곤 한다. 이런 과도한 경쟁에서 시청률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시청자로부터의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이므로 그 드라마의 성공과 인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멜로드라마 중에서도 시청률이 30%가 넘는 드라마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4][5].

조사 결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방영된 멜로드라마 중 방송사별로 30%의 시청률이 넘는 드라마의 편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방송사별 시청률 30%이상의 멜로드라마 편수

	KBS2	MBC	SBS	총계
드라마 편수	16 (36%)	10 (22%)	19 (42%)	45 (100%)

II. 멜로드라마의 구성

1. 멜로드라마의 유형

연구 대상인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시청률 30%가 넘는 텔레비전 멜로드라마 45편을 분석해 본 결과, 정통 멜로드라마인 로맨틱 멜로드라마도 있지만, 여러 양상이 함께 들어있는 멜로드라마도 있었다. 즉, 대부분이 정통 멜로드라마의 유형인 로맨스를 띠지만 로맨스이면서 코미디 요소가 함께 있다든지, 로맨스이면서 가족의 사랑을 그린다든지 등 여러 요소가 겹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대상을 분석할 때, 하나의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드라마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 하나의 장르(유형)만을 선택하였다. 연구 대상의 멜로드라마를 내용과 형식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나눠 보니, 멜로드라마의 유형은 ‘로맨스(낭만), 가족, 코미디, 전문, 액션/범죄, 청춘, 판타지, 시대극’과 같이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6-8]. 멜로드라마의 유형과 편수를 방송사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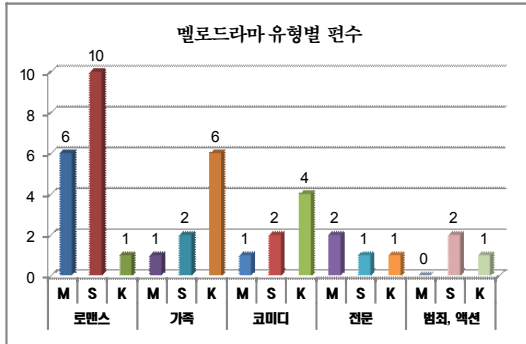


그림 1. 멜로드라마의 유형별 분석

연구 결과, 총 45편의 멜로드라마 중 로맨스가 17편 (38%)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여 정통 멜로드라마인 ‘로맨스(낭만) 멜로드라마’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이 11편(24%)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코미디’는 7편 (16%), ‘전문’은 4편(9%), ‘범죄·액션’은 3편(7%), ‘시대극’, ‘판타지’, ‘청춘’은 1편씩(2%)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맨스’를 예를 들면, MBC의 <내 이름은 김삼순>(2005), SBS에서 방송된 <천국의 계단>(2003), KBS <애정의 조건>(2004)가 이에 속한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로맨스’가 총 17편이었는데 그 중 SBS가 10편(59%), MBC가 6편(35%), KBS가 1편(6%)으로 ‘로맨스’는 SBS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은 MBC의 <위기의 남자>(2002), SBS의 <작은 아씨들>(2004), KBS에서 방송된 <넝쿨째 굴러온 당신>(2012) 등이 있다. 11편의 가족 멜로드라마 중 KBS가 9편(82%)으로 점유하다시피 많다.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공영 방송이므로 시청자의 연령대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장르를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코미디’에 속하는 멜로드라마는 MBC에서 방송된 <내조의 여왕>(2004), SBS의 <명랑소녀 성공기>(2002), KBS의 <풀하우스>(2004)가 있다. 코미디 멜로드라마도 7편 중 KBS가 4편(57%)을 차지하여 가장 많다. 코미디도 다른 장르에 비해 내용이 심각하거나 무겁지 않아 여러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KBS에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범죄·액션’은 SBS의 <울인>(2003)과 KBS의 <아

이리스>(2009)가 여기에 속한다. 연구 대상 중, 범죄·액션 멜로드라마는 SBS가 2편, KBS가 1편이며 MBC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SBS는 범죄와 폭력이 주요 내용으로 전개된다면, KBS는 폭력이 있으면서 액션과 첩보가 주요 이야기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것을 모티브로 남·북한 첩보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문’은 MBC에서 방송된 <맛있는 청춘>(2001), SBS의 <라이벌>(2002), KBS의 <제빵왕 김탁구>(2010)가 전문 멜로드라마에 해당된다. 전문 멜로드라마는 MBC에서 2편, SBS에서 1편, KBS에서 1편이다. 각각 요리, 골프, 제빵을 이야기 소재로 다룬 드라마다.

‘시대극’, ‘판타지’, ‘청춘’은 각각 한 편만 흥행하였는데 시대극 멜로드라마와 판타지 멜로드라마는 SBS에서, 청춘 멜로드라마는 KBS에서 제작한 드라마다. 이야기 전개를 위해 과거의 이야기를 보여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멜로드라마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시대극’은 시대 설정을 현재가 아닌 과거를 배경으로 하여 그 시대에 맞는 옷과 배경을 설정하고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SBS의 <패션 70s>(2005)가 있다.

‘판타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환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인데, 멜로드라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요소를 가미하여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다. SBS의 <시크릿 가든>(2010)이 대표적이다. ‘청춘’은 주로 대학생이나 청춘 남녀 등의 생활, 우정,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로, KBS의 <꽃보다 남자>(2009)가 이에 속한다.

MBC는 2000년대에 시청률이 30%이상인 멜로드라마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저조한 편(4.9%)이다. 많은 수의 드라마를 방영한 SBS는 2000년 이후의 멜로드라마 총 편수는 301편인데, 그 중 30%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19편(6.3%)을 차지하였다. KBS는 180편의 멜로드라마 중 30%이상의 시청률의 드라마는 16편 (8.9%)을 차지하여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편이다.

연도별로 살펴볼 때, MBC는 2000년 초반에, SBS는 2000년 초·중반에, KBS는 2000년 중·후반에 멜로드라마의 인기몰이를 하였다. 멜로드라마 유형을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MBC와 SBS는 ‘로맨스’로, KBS는 ‘가

죽'과 '코미디'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2. 멜로드라마의 갈등요소

여기서는 멜로드라마의 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검토해 보고 방송사별로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멜로드라마의 갈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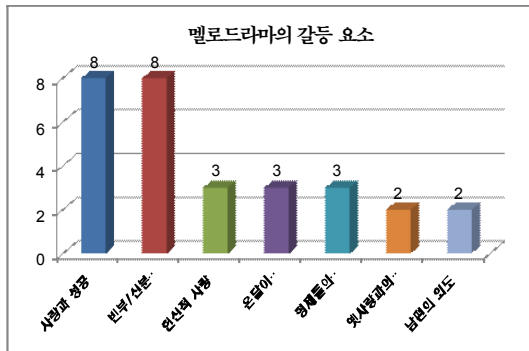


그림 2. 멜로드라마의 갈등요소

‘사랑과 성공의 경쟁’과 ‘빈부/신분 격차의 사랑/결혼’으로 인한 갈등이 각각 8편(19%)으로 가장 많으며, ‘형제들의 인연과 결혼’, ‘여주인공에 대한 사랑’과 ‘온달이 왕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각각 3편(7%)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옛사랑과의 재회’, ‘남편의 외도’가 각각 2편(5%)이다.

나머지는 모두 1편씩으로, ‘여자의 과거’, ‘여교사와 남학생의 사랑’, ‘뒤바뀐 운명’, ‘출생의 비밀’, ‘사랑과 우정’ 등과 같이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있다.

연구 대상 총 45편의 멜로드라마 중 19편이 SBS인데, ‘빈부/신분 격차의 사랑/결혼’(6편)을 가장 많이 다루며, ‘사랑과 성공의 경쟁’(5편), ‘여주인공에 대한 사랑’(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1편씩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가지고 드라마를 구성한다. MBC는 10편 중 3편이 ‘사랑과 성공의 경쟁’이고, 나머지는 각기 1편씩 다른 갈등 요소를 다룬다. 16편인 KBS는 3편이 ‘형제들의 인연 결혼’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다양한 갈등 요소가 있었다. 방송사별로 많이 사용한 갈등 요소는 SBS가 ‘빈부/신분 격차의 사랑/결혼’, MBC가 ‘사랑과 성공의 경

쟁’, KBS가 ‘형제들의 인연과 결혼’임을 알 수 있다.

3. 멜로드라마의 애정구도

멜로드라마는 사랑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다루므로 남녀주인공을 둘러싼 애정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였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애정 구도는 [그림 3]과 같이 전형적인 삼각관계로,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애정관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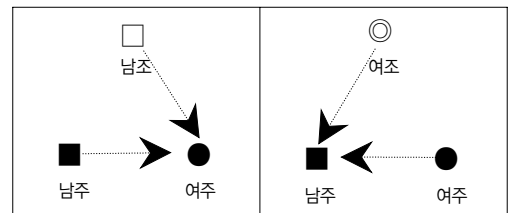


그림 3. 전형적인 삼각관계

여주인공에 남자 2명의 구도가 5편이고 남자주인공에 여자 2명의 구도는 4편이다. 여주인공에 남자 2명의 구도는 다양한 멜로드라마 유형에서 나오나 남자주인공에 여자 2명의 구도는 4편 중 3편이 ‘가족’에서 나오고 나머지 1편은 ‘로맨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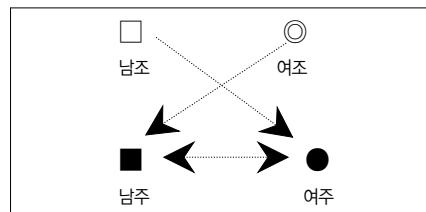


그림 4. 두 삼각관계(일반)

6편(14%)을 차지하여 빈도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한 애정 구도는 두 개의 삼각관계다. 이것은 남녀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하나, 남자주인공을 좋아하는 여자(조연)와 여자주인공을 좋아하는 남자(조연)가 있어서 남자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나의 삼각관계와 여자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삼각관계가 형성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코미디’에서 3편, ‘로맨스’에서 2편, ‘가족’

에서 1편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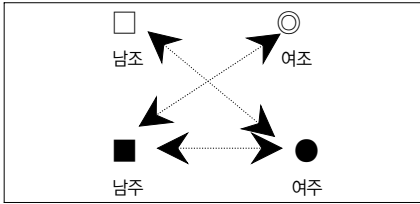


그림 5. 두 삼각관계(쌍방)

세 번째 순위는 차지한 애정 구도는 4편(9%)으로 남녀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하나, 남자주인공이 다른 여자하고도 애정 관계를 형성하고, 여자주인공이 다른 남자하고도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의 애정 구도는 남녀주인공끼리는 쌍방향의 애정 관계이고,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른 남녀가 일방향(짝사랑)의 애정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반해, [그림 5]는 남녀주인공이 쌍방향의 애정 관계를 형성하면서 각기 다른 남녀와도 쌍방향의 애정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한다. 4편 모두 '로맨스'에서 나타났다.

삼각관계에 또 다른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애정 구도는 '코미디'와 '로맨스'에서 나타난다. '로맨스'와 '코미디'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주 내용이 정통 멜로드라마의 사랑 이야기로만 흘러야 하기 때문에 자칫 뻘찬 이야기로 이어지거나 지루해 질 수 있으므로 남녀 주인공을 두고 다른 등장인물과의 애정 관계를 복잡하게 엮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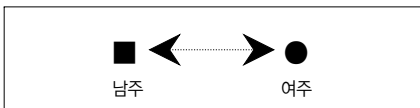


그림 6. 남녀 애정관계(쌍방)

[그림 6]은 또 다른 4편을 차지한 애정 구도로 남녀주인공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2편 모두 '로맨스'에서 나오는 구도였다. 다른 등장인물이 남녀 주인공의 애정 관계에 섞이지 않고 남녀주인공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이다. 나머지 내용은 조연의 역할 비중을 높

이거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로 많이 채워서 흥미나 이야기를 더하였다.

3편(7%)을 차지한 애정 구도는 남녀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남자주인공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여자주인공이 다른 남자와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그림 7]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두 삼각관계를 그리며 일방과 쌍방이 혼재되어 있어서 복잡한 구도를 이루고 있다. '로맨스', '전문', '액션'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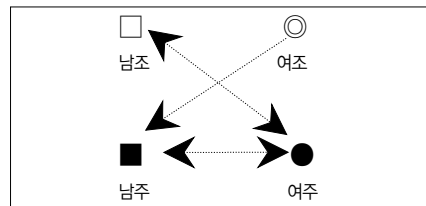


그림 7. 두 삼각관계(혼합)

나머지는 각각 2편(5%)씩 차지한 애정 구도로, 세 개의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복잡한 관계다[9]. 전형적인 삼각관계가 아닌 더 복잡한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인공 남녀 두 사람만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이라는 멜로드라마 절대 수칙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악역을 담당했던 조연들이 매력적인 인물들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애정 구도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사각라인의 등장 이후 남녀 간의 역관계와 교환관계는 뒤집히는데 바로 지고지순한 여자 주인공들이 점점 사라지고 여성들이 사랑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분석 대상 드라마에서는 남녀주인공이 과거의 사랑이 있었지만 헤어지지 않았거나 그리워하고 있던 와중에 새로운 사랑을 하는 애정 구도이다. 게다가 옛사랑의 사람이나 새로운 사랑의 사람에게는 이미 또 다른 애정 구도가 있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가족'과 '로맨스'에서 후자의 경우는 '청춘'과 '가족'에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멜로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애정 구도를 보면, MBC는 쌍방 두 삼각관계인 [그림 5]의 애정 구도, SBS와 KBS는 전형적인 삼각관계 [그림 3]과 일방 두 삼각관계 [그림 4]의 애정 구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III. 남녀주인공의 특징

시청률이 높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을 분석해 본다면 그 시대의 트렌드에 미치는 주요 특성들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방송사별로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녀주인공의 직업

남녀주인공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남녀주인공의 직업, 성격,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녀주인공의 직업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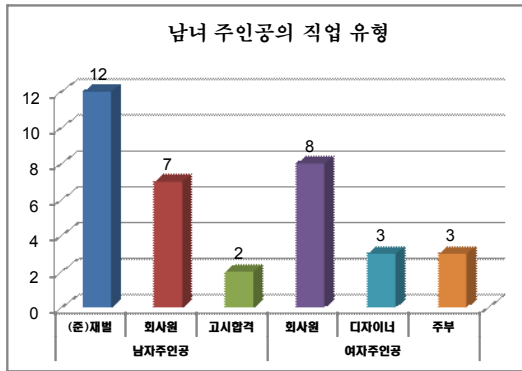


그림 8. 남녀주인공의 주요 직업

남자주인공의 직업을 살펴보면, ‘재벌’이 12편(28%)이고 ‘회사원’이 7편(16%), ‘고시합격자’가 2편(5%)의 순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은 대다수가 부자/재벌2세이거나 그룹/회사의 후계자로 나왔다. ‘로맨스’에서 5편, ‘가족’과 ‘전문’에서 2편씩, 그 외는 ‘판타지, 청춘, 가족’에서 나왔다.

‘회사원’은 드라마에서 ‘대리, 과장, 실장’ 등의 직급으로 나오며, ‘가족’에서 3편, ‘로맨스’와 ‘코미디’에서 각각 2편이었다. ‘고시합격자’는 2편 모두 남자주인공이 별다른 직업이 없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로맨스’와 ‘코미디’에서 나왔다.

그 외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으로 ‘교수, 의사, 약사, 한류스타, 외무부 서기관’ 등 직업의 유형이 다양하며 전문 직종이 많았다. 부정적으로 표현된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깡패’, ‘제비’, ‘고물 수집상’으로 3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자주인공의 직업은 ‘회사원’이 8편(19%), ‘디자이너’와 ‘주부’가 3편(7%)의 순으로 나왔다. 드라마에서 여자주인공은 직급이 ‘대리’나 ‘평사원’ 혹은 ‘임시직 직원’으로 나온다. ‘코미디’, ‘로맨스’, ‘가족’에서 2편씩, ‘범죄’와 ‘전문’에서 1편씩 나타났다. 여자주인공의 직업 유형에서 다음 순위를 차지한 직업은 ‘디자이너’와 ‘주부’인데, ‘주부’는 ‘로맨스’에서 2편, ‘가족’에서 1편 나왔으며, ‘디자이너’는 ‘코미디’, ‘가족’, ‘시대극’에서 각각 1편씩이다. 여자주인공의 직업으로 ‘교사’와 ‘중간관리자(매니저)’로도 나오고, ‘재벌총수, 외교관, 의사, 변호사, 앵커’와 같은 전문 직종에 돈도 잘 버는 인물로도 표현된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현직 가이드, 인터넷 소설가, 피아노 선생(학원), 어린이집 교사, 스타트우먼’ 등 직업이 있어도 돈을 잘 벌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남자주인공의 경제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주로 나타난다. 미디어운동본부가 드라마의 주요 여성 캐릭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전보다 직업상의 상승은 있었지만 역할의 한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0].

MBC는 10편의 멜로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이 ‘회사원’과 ‘재벌’이 각각 2편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SBS는 19편 중 드라마 속에서 ‘재벌’로 나오는 것이 5편, ‘회사원’으로 나오는 것이 3편, 나머지는 1편씩 다양한 직업이다. KBS는 16편 중 5편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이 ‘재벌’이고, ‘회사원’이 2편, 나머지는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여자주인공의 경우는 MBC는 10편 중 2편이 ‘회사원’이고 나머지는 각기 다르다. SBS는 19편 중 4편이 ‘회사원’, 2편이 ‘주부’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나온다. KBS는 16편 중 ‘회사원’과 ‘디자이너’가 2편씩이고 그 외는 다양하다. 방송 3사 모두 멜로드라마에서 대부분 남자주인공의 주요 직업으로는 ‘재벌’과 ‘회사원’(간부)으로, 여자주인공은 ‘회사원’(평사원)으로 설정됨을 알 수 있다.

2. 남녀주인공의 성격

다음으로 멜로드라마에서 남녀주인공의 성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본다. 남녀주인공의 성격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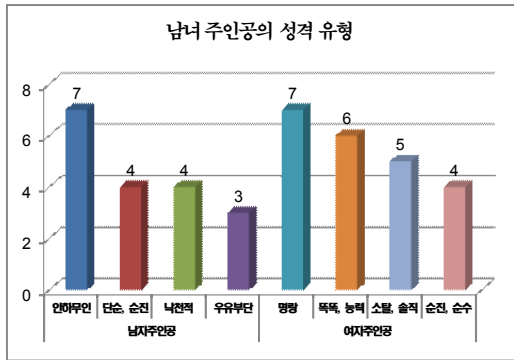


그림 9. 남녀주인공의 성격

남자주인공의 성격 유형으로는 ‘안하무인’이 7편(16%), ‘단순/순진’과 ‘낙천적’ 성향이 각각 4편(9%), ‘우유부단’이 3편(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하무인’의 성격은 ‘로맨스’와 ‘코미디’에서 2편씩 나타나고 나머지는 ‘판타지’, ‘가족’, ‘청춘’에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성격인 만큼 ‘안하무인’의 성격을 가진 남자주인공의 직업은 ‘재벌’이 4편(57%)나 되고, 그 외에는 ‘회사 중견 간부’거나 ‘한류 스타’다.

‘단순/순진’ 성격은 모두 KBS의 드라마에서 나오며, ‘가족’이 2편, ‘전문’과 ‘코미디’가 각각 1편이다.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들이 단순하면서 순진한 성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낙천적’ 성격은 ‘로맨스’에서 3편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문’이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남자주인공은 결단을 잘 못 내리는 만큼, 능력을 인정 못 받거나 애인이나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워 이 여자와 저 여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로맨스’, ‘가족’, ‘코미디’에서 1편씩 나온다.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여자주인공의 성격 유형을 살펴보면, ‘명랑’이 7편(16%), ‘똑똑/능력’이 6편(14%), ‘소탈’이 5편(12%), ‘순진/순수’가 4편(9%)의 순으로 나타

났다. 여자주인공의 성격은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명랑’한 성격은 ‘코미디’, ‘로맨스’, ‘가족’에서 각각 2편이 나오고 ‘전문’에서 1편 나온다. ‘명랑’한 성격의 여자주인공은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이 와도 밝은 성격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똑똑/능력’의 여자주인공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공부로서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기도 한다. ‘로맨스’에서 3편, ‘가족’에서 2편, ‘액션(첩보)’에서 1편이 나온다.

‘소탈’은 ‘로맨스’에서 2편, ‘가족’에서 1편 나온다. ‘소탈’한 성격의 여자주인공은 집안 배경(대통령, 재벌)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이나 능력이 여자주인공보다 못한 남자주인공과 결혼/사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순진/순수’ 성격의 여자주인공은 사람의 조건,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도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인물로 묘사된다. 남편이 친구와 바람을 피워도 남편과 친구를 믿으려고 애쓰는 인물로, 남자의 조건이나 재산보다는 남자의 마음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인물이다. ‘로맨스’에서 3편이, ‘코미디’에서 1편이 나온다.

남자주인공의 성격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는 10편 중 3편이 ‘낙천적’이고, 나머지는 여러 성격으로 나타난다. SBS는 19편 중 ‘안하무인’이 3편이며, 나머지는 다양한 성격으로 나온다. KBS는 16편 중 ‘단순’한 성격이 4편, ‘안하무인’이 3편으로 나오며 나머지는 각기 다르다. 남자주인공의 성격으로 MBC는 ‘낙천적’으로, SBS는 ‘안하무인’, KBS는 ‘단순’과 ‘안하무인’으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여자주인공의 경우, MBC에서는 ‘명랑’이 2편이고 SBS도 ‘명랑’이 2편이며, ‘소탈’과 ‘똑똑’도 각각 2편이다. 나머지는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KBS는 ‘명랑’과 ‘똑똑’이 3편씩이고 나머지는 각기 다르다. 방송 3사 모두 여자주인공의 성격으로 ‘명랑’하거나 ‘똑똑’한 성격으로 묘사함을 알 수 있다.

3. 남녀주인공의 이미지

남녀주인공의 이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내용과 주인공을 중심

으로 분류하였다[11][12].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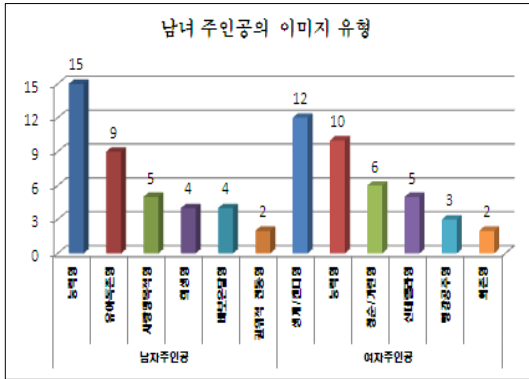


그림 10. 남녀주인공의 이미지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남자주인공의 이미지, 즉 남성상을 살펴보면, ‘능력형’이 15편(35%), ‘유아독존형’이 9편(21%), ‘사랑맹목적형’이 5편(12%), ‘바보온달형’과 ‘희생형’이 각각 4편(9%)의 순으로 나타났다.

‘능력형’은 남자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일에서 성공하거나 자신의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에서 6편이, ‘전문’에서 4편이 ‘능력형’으로 나타난다. ‘가족’에서 2편이 나오고 나머지는 ‘시대극’, ‘범죄’, ‘액션’에서 나온다.

‘유아독존형’은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고 자기 자신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보이는 이미지인데, 남자주인공의 직업이 모두 ‘재벌’(1편이 한류스타)인 경우에 남성상이 ‘유아독존형’으로 나타났다. ‘유아독존형’의 남자주인공 성격을 보면, 6편이 ‘안하무인’이었고 나머지 중 대다수가 무식하고 자유로운 성격, 마마보이(mamma’s boy)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나와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로맨스’와 ‘코미디’에서 3편씩 나오며 나머지는 ‘판타지’, ‘청춘’, ‘가족’에서이다.

‘사랑맹목적형’은 남자주인공이 해바라기와 같이 사랑하는 한 사람만을 향해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갇은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족’에서 3편이 나오고, 나머지는 ‘로맨스’와 ‘범죄’에서 나온다.

‘희생형’은 여자나 자식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맹목적형’과 ‘희생형’ 모두 드라

마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희생형’은 ‘로맨스’에서 2편, ‘코미디’와 ‘가족’에서 각각 1편이다.

‘바보온달형’은 ‘코미디’에서 3편이 나오고 나머지 1편은 ‘로맨스’다. 남자주인공의 성격은 모두 다르지만 직업이 여자주인공을 만나기 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다가 여자주인공의 도움으로 직업을 가지게 된다. 그 중 2편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고, 다른 2편은 인정받는 그룹의 후계자와 회사원이 되는 것이다.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여성상은 ‘캔디/생계형’이 11편(26%), ‘능력형’이 9편(21%), ‘청순/가련형’이 6편(14%), ‘신데렐라형’이 5편(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캔디/생계형’은 만화의 주인공인 ‘캔디’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역경이 와도 울지 않고 잘 견뎌 내는 이미지인데 ‘캔디형’은 혼자 열심히 사는 형이라면 ‘생계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을 위해 역경을 딛고 굳건히 살아가는 형이라 할 수 있다. ‘로맨스’와 ‘가족’에서 각각 4편씩이고 ‘코미디’에서 2편, ‘시대극’에서 1편이 나온다. 여자주인공의 성격은 모두 달랐으며 직업은 ‘회사원’이 2편, ‘주부’가 2편 나머지는 다양하다.

‘능력형’은 남자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여자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으로 직업이나 일에서 성공하거나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전문’에서 3편, ‘로맨스’에서도 3편이 나오고, ‘가족’에서 2편, ‘첩보’에서 1편 나온다. 이미지가 ‘능력’인 만큼 직업은 모두 다르나 전문 직종이고 성격은 ‘뚝뚝’이 3편이고 나머지는 다르다.

‘청순/가련형’은 ‘로맨스’에서만 5편이고 나머지 1편은 ‘범죄’에서이다. ‘청순/가련형’으로 나타난 여자주인공의 직업은 특정한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없다가 남자가 소개해 주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성격은 각기 다르게 나오지만 멜로드라마 3편에서 여자주인공이 고아로 나오고 편부 가정이거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다.

‘신데렐라형’은 동화에서 나오는 신데렐라처럼 부엌테기에서 어느 날 왕자를 만나 공주가 되어 살듯이, 멜로드라마에서 평범한 보통 여자가 재벌의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신데렐라형’은 ‘코미디’에서 2편, ‘로맨스’, ‘가족’, ‘청춘’에서 각각 1편이다. 결국

여자주인공이 신데렐라가 되는, 뻔한 결과에 내용상의 묘미를 위해서인지 직업과 성격은 각기 다르게 설정된다.

‘평강공주형’은 바보온달을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와 마찬가지로, 무능리한 남자주인공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인물인 여자주인공 이미지를 말한다. ‘코미디’에서 2편, ‘로맨스’에서 1편 나온다. 직업과 드러나는 성격이 모두 다르다. 3편의 멜로드라마 중 2편에서는 그 남자를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니 남자주인공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고 다른 1편은 여자주인공이 사회에 잘 적응 못하는 남자주인공을 다른 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나오는 게 조금 다르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을 대상으로 신데렐라 서사구조와 캐릭터를 분석한 결과,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다. 매력적인 외모의 착하고 좋은 여자, 낮은 사회적 지위, 그럼에도 자력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나 현대의 신데렐라 서사에서 변화가 있다면, 글로벌(global)화된 무대, 외적으로 보이는 당당함,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모습, 무작정 남성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영리함이다[13].

남성상을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MBC는 10편 중에서 ‘능력형’이 5편, ‘바보온달형’이 2편 나왔고, 나머지는 3편은 각기 다르다. 19편인 SBS는 ‘능력형’이 7편, ‘유아독존형’이 4편, ‘사랑맹목적형’이 3편, ‘희생형’이 2편의 순으로 나온다. KBS는 16편 중 ‘유아독존형’이 4편, ‘능력형’이 3편, ‘바보온달형’, ‘희생형’, ‘사랑맹목적형’이 각각 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상을 보면, MBC는 10편 중 ‘능력형’, ‘생계/캔디형’이 각각 3편, ‘평강공주형’이 2편의 순이다. 19편인 SBS는 ‘생계/캔디형’이 5편, ‘청순/가련형’이 4편, ‘능력형’과 ‘신데렐라형’이 각각 3편으로 나오며 KBS는 16편 중에서, ‘능력형’과 ‘생계/캔디형’이 3편씩, ‘신데렐라형’이 2편이다.

남자주인공의 이미지로 방송 3사 모두 ‘능력형’을 선호하는데, KBS는 ‘유아독존형’ 또한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여자주인공의 이미지도 방송 3사 모두 ‘생계/캔디

형’을 선호하나 MBC는 ‘평강공주형’을, SBS는 ‘청순/가련형’을, KBS는 ‘능력형’ 또한 추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업과 성격에서 주로 나온 ‘재벌’과 ‘안하무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유아독존형’이 남성상의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여 직업, 성격,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성상도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성격은 ‘명랑’하여 고난이 와도 잘 견디는 ‘캔디/생계형’이 맞음을 알 수 있다.

IV. 분석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빈번한 멜로드라마 유형은 ‘로맨스 멜로드라마’다. MBC와 SBS에서도 ‘로맨스 멜로드라마’가 가장 많으나 KBS는 ‘가족 멜로드라마’와 ‘코미디 멜로드라마’가 많다.

둘째, 멜로드라마인 만큼 주요 갈등 요소는 ‘사랑과 성공을 위한 경쟁’이거나 ‘빈부 격차를 극복한 사랑’임을 알 수 있다. 갈등 요소는 방송사마다 각기 다른데, MBC는 ‘사랑과 성공을 위한 경쟁’, SBS는 ‘빈부 격차를 극복한 사랑’, KBS는 ‘온달을 왕자로 만드는 노력’이 가장 많다.

셋째, 애정 구도는 남녀주인공의 사랑을 중심으로, 남녀주인공을 각각 좋아하는 일방향인지 서로 좋아한 쌍방향인지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멜로드라마의 주요 애정 구도는 남녀주인공을 둘러싼 전형적인 삼각관계와 두 개의 삼각관계임을 알 수 있다. SBS와 KBS는 전형적인 삼각관계가, MBC는 두 개의 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넷째, 먼저 남녀주인공의 직업이 내용 전개상 아주 다양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남자주인공은 ‘재벌’과 ‘회사원’이 많으며, 여자주인공은 ‘회사원’과 ‘주부 및 디자이너’가 많다. 여자주인공들은 돈을 잘 못 벌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렵게 나오는 반면, 남자주인공들은 주체 못할 만큼 돈이 많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방송 3사 모두 멜로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으로는 ‘재벌’, 여자주인공의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가장 빈번하다.

다섯째, 남녀주인공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남자주인공은 ‘안하무인’과 ‘우유부단’과 같이 부정적인 성격이 많고, 여자주인공은 ‘명랑, 똑똑, 소탈’과 같이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로 나온다. 남자주인공의 성격은 방송사별로 각기 다른데, MBC는 ‘낙천적’, SBS는 ‘안하무인’, KBS는 ‘단순/순진’이 가장 많은 반면에 여자주인공의 성격은 방송 3사 모두 ‘명랑’이 가장 많다.

여섯째, 드라마에 나타나는 남성상에서 남을 생각지 않는 ‘유아독존형’이 있고 여성상에도 남자의 도움으로만이 일이 해결되거나 이루어지는 ‘신데렐라형’과 ‘청순/가련형’과 같이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2000년대 멜로드라마의 남성상과 여성상은 ‘능력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MBC와 SBS는 ‘능력형’, KBS는 ‘유아독존형’이 남성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여성상은 방송 3사 모두 ‘캔디/생계형’이 가장 많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여성은 보통 순종적이며 희생적인 현모양처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은 전업주부, 사무직, 판매직 등으로 주로 여성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행동력은 남성위주로, 감성적 성향은 여성 위주로 묘사된다.

90년대 초반에 발표된 여성 이미지 연구에서도 80년대의 그것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 여성은 전통적인 가사역할 수행자가 대부분이고,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에게는 개인문제, 가정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은 의존적, 순종적, 비야심적, 추종적 성향이 두드러지며 소극적, 낭만적, 인내, 용감하지 못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14].

2000년 이후의 멜로드라마를 연구한 본고와 앞의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여성상이 많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남자주인공에게 기대고 있으며 직업에 있어서도 전문 직종이 적은 편이다. 결국 이미지로 살펴보면, 멜로드라마에서 경제적 여건은 좋지 않지만 긍정적 성격

의 캔디형 여자주인공이 돈이 많거나 아주 능력 있는 유아독존형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남자주인공을 만나 자신의 긍정적 마인드로 남자를 포용하여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직업의 유형과 애정구도에도 차츰 변화의 징후를 찾을 수 있는데, 남녀 주인공의 직업에서 다양한 전망의 직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남자는 재벌이고 여자는 평범한 회사원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나온다. 이는 현재 실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구도를 ‘빈익빈 부익부’라는 극명한 점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멜로드라마의 삼각관계의 애정 구도도 남녀주인공 중심의 삼각관계에서 여러 개의 삼각관계로 더 복잡한 애정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방송사별로 멜로드라마의 특성에서 유사한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드라마 경쟁 시장에서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드라마 구성을 멜로드라마 중심으로 구성하지만 방송사만의 특징이 반영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방송사별 프로모션 전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MBC는 여러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브랜드 이미지를 좋은 편이었고, KBS는 보도 프로그램과 경영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이미지가 괜찮은 편이었다. 한편 SBS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흥미성과 건전한 오락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15].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시청자들의 방송 3사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유사한 평가를 하였다[16]. 결국 SBS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흥미와 오락성, 선호도, 독창성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방송사별로 방송태도라든지 전략과 같이 간접적이면서 큰 구조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방송사에서 어느 작가를 유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느냐에 따라 드라마의 특성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리라고 본다. 연구 대상인 45편의 멜로드라마의 작가를 방송 3사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방송사별로 다양한 작가가 각각의 드라마를 썼으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MBC에서는 김인영 작가가 10편 중 2편을, KBS는 문영남 작가가 16편 중 3편을, SBS에서는 김은숙 작가가 19편 중 3편을 차지하였다. 이 작가들이 쓴 멜로드라마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니, 방송 3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MBC에서 인기를 얻은 김인영 작가의 두 편의 드라마는 <내이름은 김삼순>(2005)과 <맛있는 청혼>(2001)이고 KBS에서는 <애정의 조건>(2004), <장밋빛 인생>(2005), <수상한 삼형제>(2009) 세 편이 문영남 작가이다. SBS에서는 김은숙 작가로 <파리의 연인>(2004), <프라하의 연인>(2005), <시크릿 가든>(2010) 세 편이다.

MBC의 김인영 작가는 두 편의 드라마에서 로맨스가 주요 내용인 반면 <맛있는 청혼>은 요리를 주제로 전문 영역을 다루었다. <내이름은 김삼순>에서도 남자 주인공은 레스토랑 경영이고, 여자주인공은 파티쉐로 빵을 소재로 한다. 두 작품 모두, '전문'과 '로맨스'를 다루며 여자주인공 성격이 모두 '캐디형'이다. KBS의 문영남 작가는 세 작품 모두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공통점이고 <애정의 조건>과 <장밋빛 인생>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직업이 뚜렷하게 없고 청순하거나 그저 참는 역할에 충실하게 그려져 있다. SBS의 김은숙 작가는 세 편 모두 로맨스 멜로드라마의 진수를 보여 준다. <파리의 연인>과 <시크릿 가든>에서는 남자 주인공 직업이 재벌로 나오는 반면, 여자 주인공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프라하의 연인>은 남녀 주인공의 직업과 가정 배경이 뒤바뀌었을 뿐 나머지 두 편과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그리고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방송 3사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방영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은 한국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를 대상으로, 멜로드라마의 이야기 구조와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남녀주인공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를 정리해 보면, 안하무인의 성격을 가졌으나 능력형의 재벌인 남자 주인공과 캐디처럼 명랑한 성격의 평범한 회사원인 여

주인공이 등장하여 '사랑과 성공을 위한 경쟁'을 주제로 삼각관계 구도를 그리는 로맨스 유형의 극으로 구성된 드라마가 2000년 이후에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방송사별로도 인기를 얻은 멜로드라마의 특징도 알 수 있는데, MBC는 낙천적 성격의 능력형 재벌인 남자가 명랑한 캐디형 회사원인 여자를 만나 두 개의 삼각관계 사랑을 하는 로맨스 드라마가 인기 있다. 복잡한 사랑인 만큼 그 주제는 '사랑과 성공을 위한 경쟁'이다. KBS에서는 단순/순진한 성격의 유아독존형 이미지를 가진 재벌의 남자가 캐디와 같은 명랑한 성격의 회사원인 여자를 만나 삼각관계의 애정구도를 이루며 사랑을 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왕자로 만드는 노력'을 하는 코미디 유형의 멜로드라마다. SBS에서도 로맨스 멜로드라마가 주로 인기 있는데, 안하무인의 능력형 재벌 남자가 명랑한 성격의 캐디 같은 여자를 만나 삼각관계 사랑을 하다가 결국 '빈부 격차를 극복한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 된다.

방송 3사 모두, 대중이 좋아하는 멜로드라마를 주로 편성하지만 각 방송사만의 특징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MBC는 남녀주인공의 특성에서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미지를, KBS는 이야기의 중심이 가족구성원이며 여성은 인내와 청순 이미지를 내세운다. SBS에서는 주인공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이 극과 극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자주인공은 항상 남자 주인공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는 이미지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는 MBC는 직업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이미지로 나아가려고 하고 KBS는 아직 가족 중심과 보수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고수하며, SBS는 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멜로드라마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방송 3사의 멜로드라마를 반성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의미를 찾고 싶다. 그리고 한류 문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의 드라마이므로 향후 세계로 뻗어가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훌륭하고 역량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참 고 문 헌

- [1] 최인양, *텔레비전 드라마의 구조주의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2] 김수동, "TV 드라마의 현황과 전망", *방송연구*, 겨울호, p.83, 1982.
- [3] 이수범, "지상파 방송사 프로모션 전략과 방송 공익성",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권, pp.3-4, 2005.
- [4] <http://www.agbnelsen.co.kr>
- [5] <http://www.tnms.tv>
- [6] <http://www.imbc.com>
- [7] <http://www.sbs.co.kr>
- [8] <http://www.kbs.co.kr>
- [9] 신주진, *빨간 드라마 정한 러브*, 여이연, 2007.
- [10] 홍지아, "TV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봄49호, p.134, 2010.
- [11] 박나경,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남성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5.
- [12] 서숙영, *TV드라마 속 여성상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 [13] 김명혜, "드라마 <파리의 연인>을 통해 본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문제점", *프로그램/텍스트*, 제11호, p.202, 2004.
- [14] 김순기,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주인공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5] 이수범, "지상파 방송사 프로모션 전략과 방송 공익성",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권, p.6, 2005.
- [16] 이우승, 안재현, "지상파 방송사 이미지와 시청자 태도와의 관계분석",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4호, pp.463-464, 2004.

저 자 소 개

박 은 하(Eunha Park)

정회원



- 1996년 2월 : 대구대학교 영어교육과(문학사)
- 2003년 2월 : 대구대학교 영어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드라마, 방송언어, 사회언어학